

사회

추석 온정 '뚝' 끊겼다

불황에 이웃돕기 성금 작년의 절반

복지시설 기부 줄어 소외계층 쓸쓸한 명절

추석(12일) 연휴가 다가오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손길이 뚝 끊기면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은 쓸쓸한 명절을 보내게 될 처지다.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이하 전남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추석에 앞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돕기' 모금액이 6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쌓이나 가진재품, 생활필수품 같은 물품 기부는 전무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모금액의 절반 수준이라고 전남 공동모금회 측은 밝혔다. 특히 올 추석 모금액은 한 기업이 한꺼번에 기부한 것으로 모금액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전남 공동모금회 측은 추석에 맞춰 자체 사업비와 함께 모금된 현금과 물품을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모금액이 적어 소외계층이 받게 될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작년 경우 추석 전 1개월 동안 약 1200만원의 현금과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모였다"며 "불황 때문인지 올해에는 문의는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도움의 손길이 끊기거나 줄어들 것은 공동모금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다. 과거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독거가의 후원금이나 물품 기부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올 추석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거나 액수와 양이 크게 줄었다. 광주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예년에는 큰 명절이 다가오면 개인의 기부나 자원봉사자의 방문이 줄어 있었는데, 갈수록 이러한 모습을 보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가족이 없거나 떨어져 지내는 시설업소자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광주시 서구의 경우 최근 한 업체에서 100만원을 보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기부가 전혀 없는 상태며, 나머지 자치구 역시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관계자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기부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명절의 기쁨은 나눔에 있는 만큼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초등학생 제자 성추행 교사 징역형

전주지법, 2년 6월 선고

초등학교 여자자를 성추행하는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는 7일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초등학교 교사 A(6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의 항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명령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보조금 900만원 편취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2000만원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일 형사1단독은 7일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순창군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문란하게 해 그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비추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한 돈을 순창군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1월 순창군에서 발주한 '산림경영단지 작업용 개설사업'에 아내 명의의 사업자 선정된 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780만원을 편취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00여 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고흥 가스 폭발 주택 화재

7일 오후 3시 40분께 고흥군 도화면 봉산리 보산마을 최모(86·여)씨의 집 부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한식 가옥 10여m가 소실됐고 최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가스에 인지를 켜는 순간 갑자기 '펑'하고 불이 붙었다"는 최씨의 진술로 미루어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복지시설 가는 '사랑의 송편'

빛고을 노인복지재단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7일 광주시 남구 도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사랑의 송편빚기 행사'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만든 송편을 성빈여사, 귀일원 등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성 호남고속철 터널 붕괴 매몰 인부 6일만에 시신으로

경찰, 안전규정 준수 조사

호남고속철도 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광주일보 9월 5일 6면)가 결국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장성경찰과 119구조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7분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공사현장 5-1공구에서 유모(44)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유씨는 쇼크리프트(굴착작업중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콘크리트 등을 뿌여 급속 응고 시키는 작업) 장비 옆 1.5m 지점에서 바위와 토사에 갇힌 상태였다. 유씨는 지난 1일 밤 9시5분에 이 터널공사 현장에서 쇼크리프트 작업을 벌이던 중 갑자기 토사가 흘러내리는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매몰됐었다. 당시 현장에는 유씨를 포함해 총 5명의 근로자가 작업중이었으나 유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이 수습되면서 경찰은 공사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설계도면을 입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한 뒤 약화된 지반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현장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유씨만 매몰된 이유와 사고 발생 6시간여가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경위 등도 밝힐 방침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운전중 DMB 시청, 음주운전보다 위험”

도로교통공단 밝혀 “전방 주시율 떨어져”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시청하는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정상 상태에서 76.5%인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이 DMB를 시청하면 50.3%까지 떨어져 사고 위험이 급속히 커진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면허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의 전방 주시율인 72.0%보다 낮은 수치다. 공단은 DMB TV를 켜 놓은 상태에서 주행하면 돌발 상황에서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47초가 더 걸린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속 60km로 주행할 경우 정지거리가 24.5m 더 길어진다는 의미다. 공단 관계자는 “운전 중 통화나 스마트폰 앱 사용, 음식 취식 등이 모두 위험하지만 DMB TV는 특히 사고 위험이 커진다”면서 “추석 명절 귀성길과 같은 장거리 운전 때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5촌 조카 흉기 피살

용의자 또 다른 조카 인근서 자살

박근혜 전 나라대표의 5촌 조카가 북한산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6일 새벽 5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유이동 북한산 탐방안내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박모(50)씨가 흉기로 얼굴 등을 수차례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 신고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경에는 피살 현장에서 3km 가량 떨어진 북한산 용암문 인근 등산로에서 박 전 대표의 또다른 5촌 조카인 박모(5살)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피살된 박씨의 차량 옆에서는 둔기가, 현장에서 100여m 떨어진 개울가에서는 흉기가 발견됐고 자살한 박씨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 속에서도 흉기가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살된 박씨는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혜의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로부터 '나를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고 중국에서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피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가거도서 낚시꾼 실종

7일 오후 1시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2구마을 인근 바다에서 낚시하던 한모(71·전주시)씨가 실종돼 목포해양경찰이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낚시배 선장 임모(54)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선건여에 내려주고 4시간 후에 데리러 가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가보니 낚시 도구와 옷만 있을 뿐 한씨가 보이지 않아 해양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은 민간자율선박 등을 동원,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대전지검 현직 검사 관사서 숨진 채 발견
7일 오전 9시45분께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직인 허모(34) 검사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허 검사는 대전지검 소속으로 올해 1월 배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검사를 발견한 동료는 경찰에서 “전날 오후 10시30분께 퇴근한 허 검사가 오늘 오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른 동료와 함께 관사에 가보니 허 검사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어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허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짧게 쓰여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세금 탈루 강호동 고발 당했다
○최근 세금 파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고 나서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밝힌 연예인 강호동(41)을 한 시민이 검찰에 고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시민 전모씨는 이날 오전 “강호동의 탈세 행위에 사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
○전씨는 고발장에서 “강호동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을 대표하는 MC임에도 국가 경제를 현저히 마비시킬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수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행정, 세, 조세, 고령화, 보건, 복지, 기술직
 강의시간: 18:00~18:00 (2개월 완성)
 수강료: 49,900원 (2011년 9월 15일)

9급 종합반
 행정, 세, 조세, 고령화, 보건, 복지, 기술직
 강의시간: 18:00~18:00 (2개월 완성)
 수강료: 49,900원 (2011년 9월 15일)

법원서기보
 행정, 세, 조세, 고령화, 보건, 복지, 기술직
 강의시간: 18:00~18:00 (2개월 완성)
 수강료: 49,900원 (2011년 9월 15일)

지방소방직(전문)
 소방, 화재, 안전, 생활안전,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강의시간: 18:00~18:00 (2개월 완성)
 수강료: 49,900원 (2011년 9월 15일)

지방경찰직
 행정, 세, 조세, 고령화, 보건, 복지, 기술직
 강의시간: 18:00~18:00 (2개월 완성)
 수강료: 49,900원 (2011년 9월 15일)

9급 야간반
 행정, 세, 조세, 고령화, 보건, 복지, 기술직
 강의시간: 18:00~18:00 (2개월 완성)
 수강료: 49,900원 (2011년 9월 15일)

농업직/기술직
 행정, 세, 조세, 고령화, 보건, 복지, 기술직
 강의시간: 18:00~18:00 (2개월 완성)
 수강료: 49,900원 (2011년 9월 15일)

사회복지직
 행정, 세, 조세, 고령화, 보건, 복지, 기술직
 강의시간: 18:00~18:00 (2개월 완성)
 수강료: 49,900원 (2011년 9월 15일)

개강 10월 4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강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관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